

불멸의 독창성을 따라가는 영혼의 순례

《지상의 낮선 자 보들레르》 펴낸 윤영애 교수

현대성을 개막한 시인 보들레르의 삶은 위태롭게 펼쳐졌다. 끊임없는 빗잔치, 금치산자 선고, 대중들의 무관심 등은 그를 서서히 병들게 했고 그토록 사랑한 도시 파리를 떠나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독창적 지성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작가 고티에는 보들레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더없이 극적인 모험들이 그의 두뇌의 둥근 천장 밑에서만 묵묵히 연출되는 한 사람의 전기는 전혀 다른 계열의 문학적인 작품이다”고 말이다.

윤영애 교수(58, 상명대 불어교육과)가 펴낸 《지상의 낮선 자 보들레르》는 보들레르에게 헌정하는 30년 ‘연애편지’다. 한 시인을 마음 속에 두고 더러는 대표작 번역(《파리의 우울》《화가와 시인》)으로, 테마 워크(《파리의 시인 보들레르》)로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사모의 징’은 더욱 또렷해졌다. 결국 한 시인의 전 생애를 통해 그의 영혼까지 꺼내기 위해 펜을 잡았다.

“보들레르는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죠. 그는 대도시의 쓰레기 같은 삶에서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창녀들의 짐승 같은 수면과 향기가 빠져나간 향수 속에서, 비참하고 악하고 퇴폐적인 것들에 자극받고 흥분하면서도 언제나 인간 영혼이 머물 곳을 찾아내서 가리켰어요. 그런 그가 비참하게 살았다는 사실은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보들레르는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예요. 비참하고 악하고 퇴폐적인 것들에 자극받고 흥분하면서도 언제나 인간의 영혼이 머물 곳을 찾아내서 가리켰어요. 그런 그가 비참하게 살았다는 사실은 정말 참을 수 없어요.”

가스 스토브가 흰 수증기를 올리는 연구실에서, 너털너덜해진 《악의 꽃》 위에 손을 올린 채 그는 입을 연다. “극에 달한 고통만이 영혼을 건져 올릴 수 있다”고 한 어떤 시인처럼, 보들레르가 깨어있는 정신의 영원한 화두인 이유를 윤교수는 엄격하고 순결한 영혼의 단련에서 찾고 있다.

“보들레르는 댄디였어요. 속물들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죠. 품위를 중시하고 독창성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삼는 예술가, 궁극적으로는 차원 높은 정신주의와 실리와 관계없는 미를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이들. 보들레르는 이 댄디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책은 보들레르의 성장기를 잔잔하게 비추면서 시작한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어머니에게서 여성적 성스러움을 간직하는 유년의 샤를, 성직자를 꿈꾸면서 한편으로는 배우를 동경하고 라틴어 시작 콩쿨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망한 소년, 수십번이나 거처를 옮겨다니던 지긋지긋한 호텔방에서 도시의 삶이 주는 도취적 쾌



윤영애 교수

민음사/A5/334면/13,000원

락에 온몸을 의탁했던 청년, 한번도 시작(詩作)을 멈추지 않았지만 서른이 넘어서야 실명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몇 년을 기다린 시집 출판이 우여곡절 끝에 출판되기로 결정됐을 때도 시집의 장정이나 활자 크기의 미적 결합을 못견뎠던 극단의 심미주의자, 어머니와 혼혈아 잔느 뒤발에게서만 휴식다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결벽증 인간, 포와 바그너를 사랑하고 들라크루아 미술의 현대성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평론가 등이 보들레르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로는 대중에게 놀림받는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가진” 한 마리의 알바트로스 신세였다.

벨기에 브뤼셀로 망명한 보들레르가, 천재를 알아볼 재간이 없는 선원들 사이에서 삶의 마지막 고향을 남김 없이 짜내고 있을 때 이 책도 막바지에 도달한다.

윤교수는 보들레르와 그의 정신적 친구들의 명언을 자주 인용하는데, 마치 “망망대해에 파도치는 것 같은” 이 문체들은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묘미다. 책장을 덮자 궁금증이 도진다. 평전이라고 하기엔 대상과 관찰자의 심리적 거리가 너무 밀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남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받을 때였어요. 지도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러시더군요. 정말 보들레르를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그땐 정말 고독했어요. 가족과도 떨어져 있었고, 5년 동안 오직 보들레르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성민 기자

한 사진가의 '찰칵' 안으로 들어온 문인들의 내면

《작가 일흔일곱의 풍경》 펴낸 한영희씨

사진은 피사체가 놓인 시간의 공기를 담아낸다. 사진을 찍는 순간 공기는 정지된 시간에 힘입어 찰나이면서 영원인 '찰칵' 안으로 들어와버린다. 피사체는 그저 무감히 흐르는 시간과 함께 지나치고 말았을 자신의 한순간과 그 순간을 둘러싼 공기를 사진기에 들켜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사진은 지극히 개인적인 피사체의 기록이다. 또한 사진은 피사체가 찍히는 순간 프레임 바깥에 흐르는 시간을 상상하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진은 한 시대의 기록이기도 하다.

《조선일보》 사진기자 한영희씨(54)가 펴낸 《작가 일흔일곱의 풍경》은 한씨의 '찰칵'에 들킨 작가들의 얼굴과 그들의 일상이 주인공이다. 이 책에는 김영하, 하성란, 한 강부터 고 은, 박경리, 피천득에 이르기까지 2000년을 전후로 우리 시대 정신에 개입해온 77명의 '한국문학의 안면' 159컷이 담겨 있다.

한씨의 사진집 안의 작가들은 하나같이 자신만의 고유한 표정과 주변 일상으로 표현돼 있다. 시인 고 은은 파안대소를 하고 있고, 소설가 박경리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뭔가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있다. 시인 김정환은 캄코더 액정에 자신의 자화상을 내비치고 있는가 하면, 소설가 한강은 자신의 잠든

“사진을 찍으러 가기 전에 그 작가에 대해서 정보도 뒤져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읽었던 책도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도 사진은 역시 의외성이 많아서 처음 맞닥뜨렸을 때 찍은 사진이 가장 나은 경우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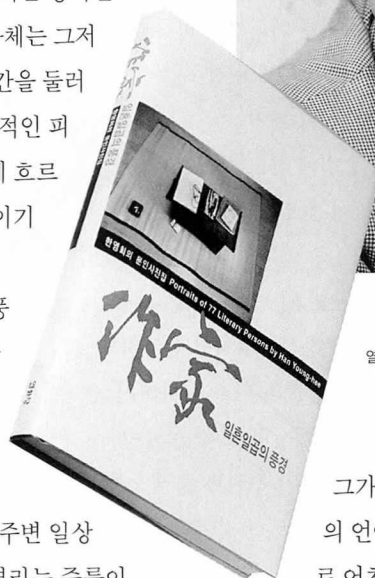
아기를 살짝 웃으며 내려다보고 있다. 소설가 김주영은 노래방으로 보이는 어둡침침한 조명 아래서 몸을 흔들며 춤추고 있다. 작가와 작가 자신의 주변은 한씨의 사진에 들켜 신비화된 이미지를 벗어던지지만, 작가들은 한씨의 사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띠고 한씨가 찍어낸 그들의 깊이 안에서 다시 신비화된다.

“사진을 찍으러 가기 전에 그 작가에 대해서 정보도 뒤져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읽었던 책도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도 사진은 역시 의외성이 많아서 처음 맞닥뜨렸을 때 찍은 사진이 가장 나은 경우도 있어요.”

사진이 아무리 의외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씨는 작가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여러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 아쉬움 속에는 자신이 사진기자로서 과연 성공했는가 하는 회의도 묻어 있다. 사진기자로서 그가 찍어온 사진 습관들이 도리어 문인들의 내면을 붙잡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한영희씨



열화당/B5/230면/25,000원

그가 후기에 표현한 것처럼 “문인들의 삶의 언어를 사진으로 이뤄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기도 하고 자신 없기도 한 해결되지 못할 숙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씨는 신문에 실리는 인터뷰 사진들을 스스로 반성하고 비판한다. 신문에 실리는 사진은 대부분 정좌된 자세인 데다가 웃는 사진이며 얼굴이 잘 보이는 사진이다. 이제는 그런 구태의연한 클로즈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얼굴 전체를 보여줄 것인가 반절만 보여줄 것인가는 결국 사진기자 자신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신문과는 별도로 대부분 2년여 동안 재촬영한 사진들입니다. 30년 기자생활에서 뭔가 흔적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신문 안에서만 활동하던 사람이 신문을 떠난 자리에서 욕심을 부려본 거죠.”

한씨는 이 사진들로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는 9일까지 금호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광주와 대구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다. 원로 문인부터 젊은 세대까지 다양한 층위를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모아놓고 보니 다분히 주관적인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들었다. 여기 속하지 못한 문인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란단다. 그들에게는 다음에 또 기회를 마련해야겠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의 '찰칵' 안에 또 어떤 문인들의 얼굴과 풍경이 들켜 기록될지 자못 기대된다. —김장근기자

부모되기과 자식되기의 골 메우기

《한국의 아들과 아버지》 펴낸 김영진씨

부모자식 사이의 사랑이 빛을 잃는 때는 언제일까? 아마도 쏟아부은 사랑에 대해 '본전' 생각이 날 때일 것이다. '내 너를 위해 아침잠을 마다했고, 입고 있던 옷도 벗어줬으며, 네 의견을 따르기 위해 노심초사했는데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나' 는 회한이 들거나, '혼정신성(昏定晨省)은 물론, 붙잡는 손길에 꿈도 접었는데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나' 는 원망이 솟으면 그 사랑은 빛을 잃는다.

불꺼진 사랑에 상처받았거나, 위험신호인 양 깜박거리는 사랑이 안타까운 이들에게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정신과의사인 김영진씨(47, 대전중앙신경정신과의원 원장)가 펴낸 《한국의 아들과 아버지》는 '번개탄' 혹은 '풀무'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제시하고 설명하는 아버지상, 부자관계,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 아버지 벗어나기, 부권과 모권 등을 읽어내리면, 어쩌면 서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상 속에서 '내뺄는' 말 한 마디의 무게와 무심코 흘린 심리적 요소들이 가족관계에 얼마나 깊이 작용하는지 깨닫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생살을 저며내는 아픔을 주고, '마음에 범을 품고, 칼을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은 자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짐승들은 제 새끼를 마음껏 뛰놀게 두고 스스로 먹이를 해결하게 해요. 그리고 위험할 때만 개입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길러주죠. 이것을 그저 본능이라고 제쳐둘 것은 아닙니다.”

품는다' 는 섬뜩한 옛말을 증명하는 결과를 부르기 때문이다. 또 그는 "가족 간에 지나친 기대와 요구는 큰 갈등과 슬픔을 일으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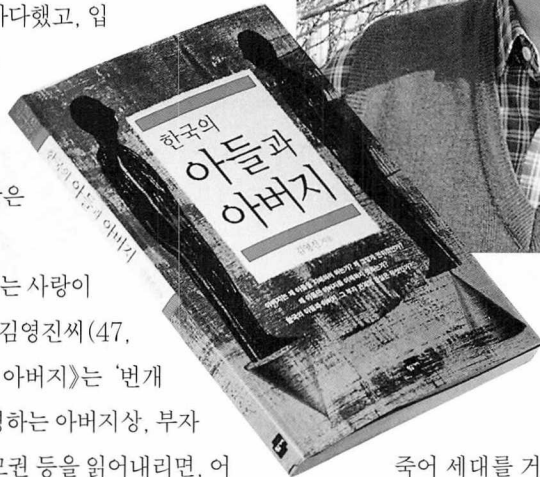
"부모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자식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의 '부모되기' 도 2년이라는 적응기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사람들은 보통 첫 아이를 낳기 전 그리고 낳은 직후에 자신이 이제 부모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를 '부모되기의 양가적 감정' 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과도한 책임감으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사람은 모두 자식으로 삶을 시작하고 대개 부모가 되지만, 경험을 아무리 살려도 '내게도 그런 때가 있었다' 는 말만 남을 뿐, 진정 '처지 바뀌 생각하기' 에 능한 부모나 자식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 한계는 너무도 분명해 사람이 수없이 나고



김영진씨

황금가지/A5신/272면/9000원



죽어 세대를 거듭해도 옛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모습은 비슷해도 해결에 대한 의욕과 지혜는 날로 커진다. 그런 노력 속에서 그가 내놓은 이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모습은 갈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치로 삼을 만하다.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은 자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짐승들은 제 새끼를 마음껏 뛰놀게 두고 스스로 먹이를 해결하게 해요. 그리고 위험할 때만 개입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길러주죠. 이것을 그저 본능이라고 제쳐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자녀는 유쾌한 생활태도로 부모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녀 교육론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프로그램이 쏟아지는 데도 세상은 나날이 각박해지고 본데없이 자랐다는 악평을 듣는 자식들은 늘어만 간다. 이런 세대에 "부모가 아이를 떠받들어 자기만 아는 아이로 기르지 않아야 한다. 부모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공질서 교육을 제대로 못해 타인에게 폐가 되는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자식은 훗날 자신의 부모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그의 이야기는 경계로 삼을 만하다.

그는 다음 책에서 사람들 사이의 기대와 욕망, 실망과 좌절, 슬픔의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번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남다른 시각과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제시하는 책을 또 선사할 것이다.

—차정신기자

훈수꾼은 싫다, 살아 있는 아이들의 생각을 키워주자

《전래 동화 속의 철학》 펴낸 이종란 교사

목동초등학교 교정을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의 함성이 뽀얀 먼지에 묻어 날린다. 가방과 신발주머니는 운동장가에 팽개치듯 부러두고 아이들은 먼지 속에서 공을 찬다. 공과 아이들은 하나가 되고, 이 순간 운동장은 그들에게 더 없이 넓은 우주다.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고 있으려니 중앙현관에서 아이들만큼이나 해맑은 얼굴을 한 선생님이 걸어 나왔다. 그가 바로 《전래 동화 속의 철학》을 펴낸 이종란 교사(46, 목동초등학교)다. 반갑게 다가와 악수를 청한 그는 한번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저 모습이 바로 '살아 있는 아이들의 삶'이 아니겠냐며 기자에게 언질을 주는 듯했다. 짐짓 바짓단에 흙이 묻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다.

“요즘 아이들에게 전래 동화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읽으나마나 한 ‘뻔한 이야기’ 라고 넘겨버립니다. 결과가 틀에 박힌 이야기라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이 전래 동화를 외면하는 건 컴퓨터와 오락기, 비디오 등 영상매체 탓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전래 동화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 동화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책장을 넘기다보면 오랫동안 독서지도를 해온 그의 현장경험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질문들은 수업시간에 거의 '임상실형' 을 거친 내용들이

“전래 동화가 아이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려면 고답적인 ‘옛날 이야기’ 를 ‘살아 있는 이야기’ 로 바꿔줘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이 맞지 않은 이야기를 아무런 해석 없이 읽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 있죠. 전래 동화를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 새롭게 각색한 이야기들은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가 개발한 독서장치들이다.

“전래 동화가 아이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려면 고답적인 ‘옛날 이야기’ 를 ‘살아 있는 이야기’ 로 바꿔줘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이 맞지 않은 이야기를 아무런 해석 없이 읽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 있죠. 전래 동화를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는 하나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과정을 여덟 단계로 나눈다. 특히 이 책의 핵심인 다섯번째와 일곱번째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다섯번째 부분은 그 이전단계를 통해 알게 된 논리 및 철학적 물음을 다양한 질문 속에 풀어놓았고, 전래 동화의 현실적용 문제를 다룬 일곱번째 부분은 동화의 주제를 현실에 맞도록 재해석해 새로운 이야기로 꾸몄다. 무엇보다 이 책의 매력은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이종란 교사

철학과현실사/A5신/244면/7000원

훈계를 하지 않는 데 있다. 단지 옛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그것이 현재의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환기시키고 스스로 느끼게 도와줄 뿐이다.

그가 아이들과 함께 해온 시간은 올해로 25년째다. 하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은 그를 잠시도 쉬게 하지 않았다. 뒤늦게 철학공부를 시작해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평범하지 않은 선생님이 몇몇 대학에서 강의도 했다. 그 시절 초등학교를 떠나고 싶은 유혹도 일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차마 등질 수 없어 지금의 자리를 지키게 됐다고 한다. 이 책을 쓴 것도 구름 위를 맴도는 철학을 흠뻑 지 날리는 아이들의 삶터로 끌어내리기 위해서였다.

“전래 동화나 민요, 신화 속엔 민중들의 생각이 담겨 있죠. 하지만 기존의 한국철학은 문자를 아는 일부 지배층의 철학, 곧 반쪽 철학이었습니다. 이제는 전래 동화를 읽는 것이 단순히 흥밋거리에 만족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녹아 있는 민중철학을 이해하는 전초작업이 돼야 합니다.”

어린 독자들을 위한 배려인 듯 본문 곳곳에 주제를 요약한 재미있는 삽화도 담겼다. 삽화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그는 빙그레 웃을 뿐 대답이 없다. 그 웃음 속에서 고등학생이라는 그의 딸을 떠올리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다. —박옥순기자